일본과 한국의 계단적 관계에 대해서

201814003

IT융합자율학부

김은정

이번 한일 관계에 대한 강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일본의 만화나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 양국의 역사갈등의 현황과 분석에 관하여 또한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된 글을 보았을 때 흥미로움을 느꼈습니다. 두 나라의 역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은 두 나라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글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태도와 그 갈등을 접근하는 방법에서의 두 나라의 생활방식과 환경에 따른 분석방법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그 차이에 대한 갈등이 등장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함축하자면 두 나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역사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이후의 도모를 노린다는 뜻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굉장히 계단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단은 밑바닥부터 이루어져 있어 만약 가운데 부분이 빠지거나 하면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젠가가 얼기설기 있다가 쓰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양국의 관계는 밑바닥 없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반일의 감정이 들도록 조장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반일 감정은 역사를 알기 위한 과정에서 드는 자연스러움이기에 이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반일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런 반한감정은 드러납니다. 제가 일본 오사카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 전범기를 들고 독도에 관해 이야기하시며 시위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날로 격해지는 두 나라의 국민들의 감정이 국가의 이해관계에 얽혀 냉전선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라이벌 구도는 그들이 혹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 앞에 목도한 경제적 의존성은 두 나라모두 지극히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그렇기에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더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합의점을 위해 양기호 교수님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의 객원연구원 한혜인 분의 글이 무척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글에는 징용공의 문제 해결 방안을 투트렉으로 나누었으며 국내적 노력과 국외적 노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여 저 역시 소수지만 한일관계의 올바른 기점을 향해 나아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좋은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양국의 관계에 정체됨을 느꼈고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양국의 계단이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한일 사회와 역사를 더욱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